

도 서 전 시

류무종가족 기부문화 전시회

전시회 추진팀¹⁾

< 목 차 >

- | | |
|----------------------|-------------------|
| I. 전시 개요 | 5. 류무종 기부문화도서관 소개 |
| II. 전시 기획 및 내용 | III. 개막행사 |
| 1. 기부 관련 전문서적 전시 | IV. 기념 강연회 |
| 2. 서울대 학생봉사단체 소개 | V. 마치면서 |
| 3. 직업으로서의 Fundraiser | |
| 4.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 【붙임】 전시도서 해제 |

I. 전시 개요

중앙도서관에서는 류무종 동문의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도서를 전시하고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할 목적으로 '류무종가족 기부문화 전시회(YOU Family Philanthropy Exhibition)'를 개최하였다. 한국의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는 류무종 동문(아름다운재단 이사, 다야몬드치재<주> 회장)은 3억 원의 도서관 발전기금을 기부하였고, 중앙도서관에서는 이 기금으로 기부문화, 기부모금,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이며 학술적으로 질 높은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를 학내·외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기부, 모금, 자선 관련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업 첫해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관련분야 도서구입,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차년도 부터는 2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도서구입,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의 연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8년 12월 30일 서울대 발전기금과 기금 협약서가 체결되어 중앙도서관에서는 약 3개월에 걸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http://you.snu.ac.kr>)의 오픈 행사로서 테마도서전을 준비하였다.

2009년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중앙도서관 4층 메인 홀에서 개최한 전시회는 기부문화

1) 전시회 추진팀은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의 김기태, 홍순영, 김미향, 수서정리과의 박선희, 임영희가 참여함.

관련 전문서적 300여 권 전시, 학내 학생봉사단체인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및 ‘해비타트 햇빛봉사단’ 활동, 직업으로서의 fundraiser,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 소개 등의 코너를 마련하였다.

II. 전시 기획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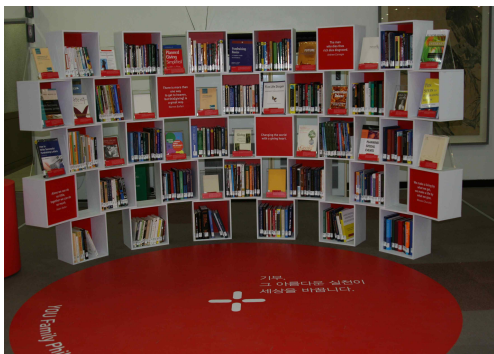
전시할 공간의 특성과 콘텐츠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동선을 규정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동선을 취하도록 기획하였다. 벽을 세워 공간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유효공간이 협소하고 북카페, 자료실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아일랜드 타입의 낮은 전시대를 통한 공간의 여유로움을 연출하였고, 바닥 면에는 그래픽 시트로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메인 컬러는 레드로 하트 즉 사랑을 표현한 색이며, 서브 컬러는 화이트를 사용하였다.

심벌마크는 둥근모서리 막대의 조합으로 더하기 표시로 형상화 하였다. 기부는 내 것을 나누어주는 행위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더해가는 과정이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더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전시회 전경

1. 기부관련 전문서적 전시



[그림 2] 전문서적 전시

2009년에는 기부문화 관련 국내 및 영미 도서를 선정하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의 자문을 받아 576종 585책을 구입하였다. 기금 협약서에는 신간뿐만 아니라 구간도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치된 도서 중에는 류무종 동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기증한 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시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약 300여책의 도서를 전시하였다.

Book Display는 2가지 방법으로 연출했는데, 하나는 책꽂이에 다량으로 진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거치대에 단독으로 진열하는 방법이다. 거치대에 단독진열한 도서는 40책이며, 해당 도서에 대한 해제를 부착하였다. 【붙임】 전시도서 해제 참조

2. 서울대 학생봉사단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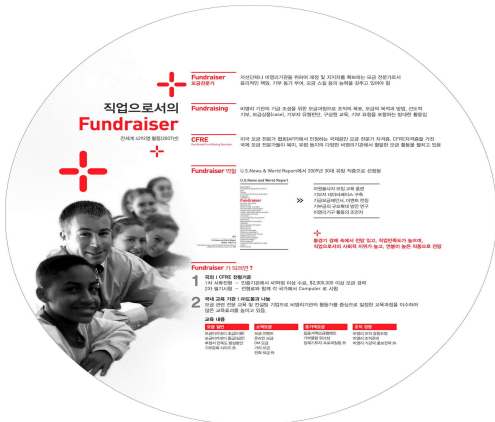
서울대 학생봉사단체 중 대표적인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과 해비타트 햇빛봉사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은 2006년 출범 이래 ‘서울대인의 1인 1봉사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의 생활화’라는 비전 아래 교육지역봉사활동, 각종 강연회나 모금활동, 나눔일기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전개해오고 있다.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서울대 학우들이 나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 서울대 학생봉사단체

해비타트 햇빛봉사단은 순수하게 서울대 학생들의 의지와 참여로 만들어져 학생들 스스로 구체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봉사동아리로서, 단원뿐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봉사자를 모집하여 함께 집짓기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단원들이 국제 NGO STAFF 인증을 받음으로써 글로벌 리더십 능력을 높이고, 주요 활동인 건축봉사 외에도 ‘과학실험, 진로지도 프로그램’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며, 대학생들의 봉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3. 직업으로서의 Fundrai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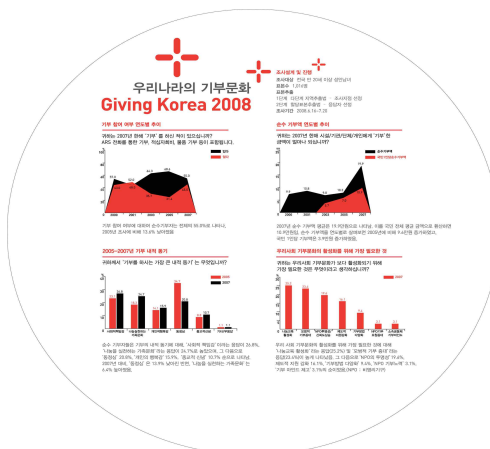


[그림 4] 직업으로서의 Fundraiser

기부금의 규모 확대방안 연구, 비영리기구 활동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아름다운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Giving Korea 2008'에서 주요 내용을 인용하였다. 기부참여 여부 연도별 추이를 보면, 순수기부자는 전체의 55.0%로 나타나, 2005년 조사에 비해 13.6%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순수 기부액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7년 순수 기부액 평균은 19.9만원으로 이를 국민 전체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9만원이다. 순수 기부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9.6만원



[그림 5]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증가하였고, 국민 1인당 기부액은 3.9만원 증가하였다. 순수 기부자들은 기부의 내적 동기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응답이 26.8%,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라는 응답이 24.7%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정심' 20.8%, '개인의 행복감' 15.9%, '종교적 신념' 10.7%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동정심'은 13.9% 낮아진 반면,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는 6.4% 높아졌다.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나눔교육 활성화'라는 응답(25.2%) 및 '모범적 기부 증대'라는 응답(23.4%)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NPO

(비영리기구)의 투명성' 19.6%, 제도적 지원 강화 16.1%, '기부방법 다양화' 9.4%, 'NPO 기부 노력' 3.1%, '기부 마인드 제고'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 소개



한국 최초의 기부문화 전문도서관인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은 2000년에 아름다운재단 내에 개설되었다. 선진국의 체계적인 모금문화를 접하고 전문적인 모금의 필요성을 느껴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은 류무종 동문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구입한 모금전문자료와 아름다운재단이 구입하여 활용했던 서적, 여러 곳의 뜻있는 분들이 기증한 책들이 모여 오늘의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림 6]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 소개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한국의 모금문화와 모금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한국의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 사업, 출판 사업, 교육 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실무자들을 모금전문가로 양성하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기부와 모금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재단(Foundation)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영리단체 경영서, 기금지원사업 관련 이론서, 기업 사회공헌 전문서적,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운동 사례집 등 비영리 영역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Ⅲ. 개막 행사

2009년 4월 6일 14:00부터 중앙도서관 4층 메인 홀에서 전시회 개막행사가 진행되었다. 개막행사에는 아름다운재단의 류무종 관장, 윤정수 상임이사, 전현경 사무국장과 서울대 이장무 총장, 김하석 대학원장, 주종남 기획실장, 김화진 사무국장, 남익현 발전기금 상임이사, 서경호 자유전공학부장, 전형준 중어중문학과장, 조홍식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의 내빈이 참석하였다.

김종서 중앙도서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장무 총장의 환영사와 류무종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도서관 관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김창근 수서정리과장의 사업 추진 경과보고가 있었다. 전시회장 관람에 이어 참석한 내빈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고, 이어서 대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림 7] 이장무 서울대 총장 환영사



[그림 8] 류무중 동문 인사



[그림 9] 김종서 서울대 도서관장 인사



[그림 10] 참석내빈 기념촬영



[그림 11] 간담회장 모습



[그림 12] 간담회장 모습

IV. 기념 강연회

전시회 개막행사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기부자는 뭘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서울대 발전기금, 서울대 중앙도서관, 아름다운재단 등 기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기부문화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

해 이루어진 이 강연회에는 약 40여명이 참석해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 강연회에서 류무중 동문은 미국 AAFRC(American Association of Fund Raising Counsel), AFP(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부자의 권리 헌장’(A Donor’s Bill of Rights)을 소개하면서 기부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부관련 종사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였으며, 강의 내용은 촬영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술행사 VOD’(http://event.snu.ac.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1. 기부자의 권리 헌장

자선(philanthropy)은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에 근거를 두며, 주는 것과 나누는 전통은 삶의 질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이다. 자선은 대중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하며, 기부자와 잠재적인 기부자는 그들의 지원을 요청받은 비영리 조직의 전폭적인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기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 ① 기부자들은 조직의 사명과 기부된 자원을 사용하려는 조직의 방법, 그리고 기부금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 ② 기부자들은 조직의 지배적 부서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 알 권리와 그들의 수입 받은 책무에 대해 분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 ③ 기부자들은 조직의 최근의 재정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④ 기부자들은 그들의 기부가 주어진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기부자들은 적절한 감사의 표시와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기부자들은 그들의 기부에 관련된 정보는 존중을 받도록 취급되어야 하고, 법이 정한 범위내의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⑦ 기부자들은 기부자가 흥미를 갖는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기부자와의 모든 관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
- ⑧ 기부자들은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인지, 조직의 직원인지, 혹은 고용된 모금원(solicitors)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 ⑨ 기부자들은 조직이 나누어 줄 수도 있는 메일 리스트(mail list)에서 제외될 권리가 있다.
- ⑩ 기부자들은 기부를 할 때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 즉각적이며 진실하고 솔직한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기부 관련 종사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 (강연 내용 발췌)

우리나라에는 기부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지만, 미국 Indiana University에는 Philanthropy Center가 있어서 전문 학위과정도 개설되어 있고, AFP 같은 고급전문가 협회가 있어서 매년

전국 큰 도시를 돌면서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데 약 4,000명이 참석한 달라스 대회 때 참석한 경험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자선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출판·선물·컨설팅 회사 등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자선연구를 유형화 해 보면 이사회 및 비영리 조직에 관한 연구가 있고, 거액의 모금을 위한 캐피탈 캠페인, 재산의 사회 환원을 위한 유산기증, 인터넷 네티즌을 상대로 한 모금, DM(Direct Marketing) 홍보를 통한 모금, TV를 2~3시간 빌려서 전문방송을 통한 모금(월드비전 등), 이벤트 행사,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 Face to Face의 가두모금, 윤리연구 등이 있다. 서울대에 기부한 3억 원은 이러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구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홍보를 하는데 사용되며, 관심 있는 학생들의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알려주지 않는데, 기부자가 요구하기 전에 자진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어야 다음 기부를 유인할 수 있다. “손님을 만족시키면 다른 한사람에게 권하지만, 손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13명에게 험담을 한다.”라는 마케팅 속담이 있으며, 기부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기회 있을 때 마다 반복해서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부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본 사람이 계속해서 하게 된다.

기부를 요청할 때는 미안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생명보험을 파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팔지만, 기부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영리 단체의 절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상대방의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인 꿈을 대신 실현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므로 거절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일을 하면 과감하고 설득력 있게 기부를 유치할 수 있다. 또한 기부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요청하게 되면 화가 나서 기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부문화가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그림 13] 류무중 동문 강연



[그림 14] 강연회 진행 모습

V.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기부에 대한 학위과정 개설, 전문가 협의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선진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여유롭게 될수록 기부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급증하여 기부문화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는 기부문화, 기금모금,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도 학술적인 자료 컬렉션의 구축을 목표로 한 것으로서, 관련 전문 서적 및 전자자료, 인터넷 정보원과 함께 학술자료에 대한 Research Guide 등을 수록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학자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학문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비영리단체 실무자나 자원봉사자, 기업의 사회공헌 분야 담당자, 대학이나 병원 기타 다양한 기관과 모금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원으로 활용되어 그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양질의 전문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지원, 양서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Research Guide 작성, 홍보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서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 이번에 도서관 발전기금을 유치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서가 기부 유도를 위한 적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업계획서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안함으로써 당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기부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도서관에도 체계적으로 모금을 전담하는 모금 전문가(fundraiser)가 양성되고 나아가 많은 기부금이 도서관에 유치되어 도서관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붙임】 전시도서 해제(40책)

1. Ready-to-go Fundraisers : 75 ways to fund your ministry

이 책은 교회의 모금 담당자, 특히 청소년 담당 목사들을 위한 책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부정부패 없이 믿음을 지키며 기부금을 모으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에 돈과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어도 결국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면 현금이나 교구에서 할당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인들로부터 기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점과 실행 방법, 필요한 물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별한 기념일들을 위한 프로젝트 역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 사역에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집회를 통해 그 교구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2. Women as Fundraisers: Their Experience in and Influence on an Emerging profession: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최근 10년 동안 Fundraising 분야에서 일어났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 모금자수의 극적인 증가이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여성들의 모금 활동 증가로 인해 주어진 기회와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여성들이 발휘하는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가 비영리 분야를 여러 모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과 인구통계학적 추세,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Fundraising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성 개발 전략과 조직 내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보수를 통해 현재의 위상, 그들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역할이 전통적인 모금 기관들의 구조와 법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하고 있다.

3. Storytelling for grantseekers : the guide to creative nonprofit fundraising

자기 기부 제안서 작성 업무를 맡게 된 사람들은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에 겁을 먹곤 한다. 이 책에서는 상담사 겸 교육가인 저자가 기부 제안서 작성에 대한 유기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또한 기부 제안서 작성을 보다 큰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스태프들과의 협력과 기부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기부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단체와 기부자들을 연결시켜 주고 결국 대단한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책에 제시된 방법들을 이용함으로써 기부금 유

치 담당자들은 경력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어떻게 그들의 열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How to Write Successful Fundraising Letters

기부 제안서는 개인적으로 기부자를 방문하는 것과 같다. 저자는 많은 회사와 단체의 자금 모금을 지도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조언과 풍부한 예시와 유익한 사례연구를 동반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편지를 통한 기부 요청을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부자를 획득한다; 둘째, 그들을 지속적인 기부자로 변화 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더 관대하고 헌신적인 기부자로 발전시킨다.” 또한 이 책에는 기부 캠페인의 전체적 계획수립과 어필하는 문구, 구성과 구두법, 정보 패킷, 추가 권유장 내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 기부금이 거의 모든 직종과 단체의 합법적인 부수입과도 같이 된 요즘, 모든 도서관 경영자들과 이용자들은 이 책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가치 있는 책임을 알게 될 것이다.

5. Understanding the Needs of Donors: The Supply Side of Charitable Giving: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비영리 단체와 기부자들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성공적인 주고받음과 기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단계들을 개괄하고 있다. 기부자들이 편안하게 기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어떻게 세금 변화가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묘사한다. 왜 그들이 기부를 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뜻 깊은 기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자금조달의 사례와 연구를 위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부자들이 단순히 수표만 끊어주는 식의 자선에서 시민 의식의 발로로서의 자선으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에 대해 논하고 있다.

6. Nonprofit Essentials: Recruiting and Training Fundraising Volunteers

저자는 자신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선과 자원봉사자 관리를 함께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직원들의 기부금 유치 활동에 전문성이 더 강조되는 시기일 지라도 자원봉사자들이 기부금 유치에 관여하는 조직들이 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 많은 연구 사례에서 밝혀졌다. 이 책은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리적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7. Planned Giving Simplified: The Gift, The Giver, and the Gift Planner

자선 기부 계획 전문가인 저자는 비영리 조직의 관리자들이 느끼는 자선 계획에 대한 복잡함을 해결해주고 있다. 저자는 성공적인 계획적 기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상세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법적, 행정적, 인간관계적 요인들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리적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자는 유능한 기부 계획자는 기부 받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이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감정적 욕구를 얼마나 더 깊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왔는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기부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관심사를 이해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계획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다.

8. Grantseeker's Guide to Project Evaluation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기부금 유치는 더 힘들어진다. 기부자들은 점점 더 자신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신경을 쓴다. 이제 강력한 프로젝트 계획만으로는 더 이상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기부자들은 그 프로젝트를 평가할 계획까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많은 기부 제안자들이 평가 계획을 제안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부금은 외부의 평가 컨설턴트까지 고용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평가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스스로 평가계획을 세우거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서이다. 또한 이번 개정판은 평가에 관한 최신 경향과 새로운 예시, 질적 평가에 대한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9. Creating Tomorrow's Philanthropists: Curriculum Development for Youth, Number 36: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이 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선 교육의 현 상황과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챕터의 저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개괄하고 현존하는 자선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짚어봄으로써 현 경향의 미래를 탐구하고 있다. 또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기관들과 자선적 가치 전달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 도덕적 모금과 청소년들을 위한 모금 체험, 고등교육에서 자선 학습의 두 가지 역할 등이 중요한 주제로서 다뤄지고 있다. 여러 사회 공동체에서 모든 수준의 자선 교육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양성되기를 바라는 이들 모두에게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10. Grassroots Grants: An activist's Guide to Grandseeking

이 책은 구상단계부터 지원 사업 계획, 단계적인 제안서 작성, 기부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등 독자들이 기부 제안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기부를 완전한 기부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갖춘 베스트셀러이다. 이번에 발행된 개정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예산과 제안서 모델, 일반 대중 사회의 기부자들과의 인터뷰, 인터넷상에 있는 모금에 대한 시기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1. Notable American Philanthropists: Biographies of Giving and Volunteering

많은 사람들이 자선은 부자나 권력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110명의 개인과 몇 가족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78가지의 프로파일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자선활동이 미국인들의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록펠러나 구겐하임같이 유명한 자선가들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1995년에 15만 달러를 서던미시시피대학교에 기부한 세탁부 오세올라 맥카티처럼 덜 알려지거나 잊혀진 사람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1600년대부터 1999년 사이의 미국 자선사업계 연표와 관련 비디오, 아동도서 목록, 색인 또한 실려 있다.

12. The Joy of Fundraising

이 책은 당신의 생각과 초점과 행동을 “부유함에서 비롯된 기부”를 요청하는 모금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가르친다. 오랫동안 신봉되어온 “부족한 가운데서의 기부”에 도전하여, 이 책은 당신의 사명에 열정적이고 장기적인 기부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비법을 제공한다. 저자는 이 책을 그녀의 오랜 모금 경험을 지원할 마음이 있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조언으로 압축시켜놓았다. 매해 반복되는 고달픈 모금 활동으로 인해 고통 받기보다는 이 책의 조언을 바탕으로 당신의 기부자들을 그들이 믿는 목적에 공헌하고 지속적인 기부를 하도록 도움으로써 진정한 모금의 즐거움을 배우게 될 것이다.

13. Robin Hood Marketing: Stealing Corporate Savvy to Sell Just Causes

베테랑 마케터이자 비영리조직 전문가인 저자는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 법칙들을 10개로 압축해 놓았다. 이 법칙들은 모든 종류의 자선 사업에 도덕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절차와 재미있는 예시와 함께 설명되어 있다. 전직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저자는 그녀의 경험을 살려, 대중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그들의 기사에 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밝히고 있다.

14. Planning Special Events

이 책은 철저히 실용적인 참고서로서 어떻게 해야 좀 더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지지기반을 넓히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저자는 이미 다른 기부 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증명된 규칙과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모금 활동 관리에 필요한 4단계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제시하고 있다.

15. Creating Change through Family Philanthropy

앞으로 50년 동안 41조 달러가 이전될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차세대 자선가들은 이 증가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는 자선계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직시하고 있다. 이 책은 40개가 넘는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젊은 자선가들이나 혹은 도덕적 기부에 관심을 가진 부유한 집안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가이드이다. 또한 특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더 나은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6. Engaging Youth in Philanthropy

비영리단체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일생동안 자선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편집자이자 Indiana Youth Institute 소장 Bill Stanczykiewicz와 그 공저자들은 자선 행위가 어린 시절 배울 수 있는 습관이라고 보여주는 성공적인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들을 살펴본다. 또한 청소년들이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학교, 정부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자선활동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자선 습관을 길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우리가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17. Fundraising Basics : A Complete Guide

비영리단체는 일반 대중, 기부자, 규제당국,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강화된 감독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기부금 모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의 직원, 관리자, 단체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의식, 책임의식 등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또한 새로운 기부 경향, 기부에 대한 동

기부여, 기부금 모금의 새로운 기술 등을 제공한다. 기부금 모금 분야의 지식을 넓히고 싶은 사람, 자선재단 근무자, 국제모금전문가 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꼭 봐야할 입문서이다.

18. The Future of Philanthropy : Economics, Ethics, and Management

“Susan Raymond는 예리한 통찰력과 세밀한 조사를 통해 자선행위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파헤친다. 이 책의 독자는 21세기의 현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비영리단체 전문가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J. Cynthia Weber, Council Funding Resource Development, Girl Scouts of the USA. “어려운 당면 과제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한 작품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선의 역할이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다.”- John L. Damonti, Bristol-Myers Squibb Foundation. “Raymond 박사는 자선행위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들을 넘어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분석은 우리 사회에서 자선행위의 동기부여와 그 결과 모두를 우리에게 환기시켜준다.” - David E. Ratcliffe, Director, The Merrill Lynch Center for Philanthropy and Nonprofit Management

19. Philanthropy and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America

변화하고 있는 미국에서 자선단체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 책은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분야가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지방정부 수준으로 퇴화, 비영리단체와 이익단체 사이의 흐릿해진 경계, 세계화, 조세규제개혁, 민영화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제안한다.

20. Diversity in the Fundraising Profession

자선 기금 모금의 새로운 경향은 다양한 그룹에서 기부문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기부금 모금 업무에 있어 다양성은 기부금 모금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내는 모금 담당자들에게 기회와 의무에 대해 말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기부금 모금에 있어 다양성의 특징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부문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

21. Fundraising for Social Change

“가장 작은 지역에 기반한 조직부터 국가차원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부금모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저자가 30년 이상 노력한 결과물인 기부금 모금 기술은 그

어느 방법보다 가치 있다.” - Ray Santiago, Seva Foundation. “이 책은 풀뿌리단체의 기부금 모금자를 위한 바이블이다. 개인 기부자를 모집하는데 궁극한 점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Kim Klein이 뭐라고 말했는지 체크해봤나요?’ ” - June Rostan, Southern Empowerment Project. “Kim Klein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비영리단체들의 기부금모금에 있어 살아 있는 전설이자 선구자이다. 그녀는 수많은 쟁점들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조언을 제공한다.” - Pam Williams, Director of Development, The Marin Humane Society

22. Giving: Charity and Philanthropy in History

Bremner는 1950년대부터 자선분야에서 중요한 미국 사학자이다. 이 책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사회의 자선행위에 대한 변화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추적한다. - **Library Journal**

23. How to Write Successful Fundraising Letters

Warwick은 기부금모금편지 작성방법을 풍부한 예제와 사례를 들어 호소력 있는 문구, 작문법, 구두점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그래서 이 책은 기부금모금을 담당하는 비전문가들에게 유용하다. 이 책 자체가 기부금모금전문가를 고용한 것과 같은 유용한 도구이다. - Mike Tribby

24. Hank Rosso's Achieving Excellence in Fund Raising

이 책은 개정 최신판으로 기부금 모금 업무를 위한 기본 개념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 책은 기부금 모금 업무의 원칙, 전략, 방법들을 조사하고, 실용적인 예를 제시한다. 기부금 모금의 대부 Henry A. Rosso와 그 공저자들은 불후의 기부금 모금 철학을 토대로 후원 대상자 조직, 기부자 접근법, 캠페인 관리 등을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 활동을 위한 계획과 전략적 선택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다.

25. Successful Corporate Fund Raising

이 책은 기부금 모금자들과 비영리단체 집행부들에게 기업 기부 기회를 잡는 방법을 보여준다. K. Scott Sheldon은 현대의 기업 기부에 대해 신선한 내부자 시각을 제공하고, 기업 기부금 모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전개한다. 그는 기업 기부금 모금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가르쳐 준다.

26. Ten Steps to Fundraising Success

일류 기부금 모금 전문가인 Mal Warwick과 Stephen Hitchcock은 비영리단체의 재정 조건을 실제로 충족시키기 위해 단순히 돈을 모금하는 것을 넘어 기부금 모금 전략 수행 방법을 가르쳐 준다. Warwick의 성공적인 다섯 가지 접근 전략에 기초하여 임무 위주의 기부금 모금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27. Generation deluxe

거부(super-rich)들은 개인적 사치를 위하여 전례 없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데 1억 달러, 메르세데스 자동차에 50만 달러 그리고 시계 하나에 120만 달러를 지불한다. 반면 'Generation Deluxe'에서는 그 이면에 나타나는 부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지출의 패턴을 조사하였다. - 과도한 소비중심주의(consumerism)는 환경과 인간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 시켰다. 이와 동시에 거부들(super-rich)이나 유명 인사들은 이러한 피해를 인식하고 또한 해결하기 위하여 수 천만 달러를 사용하고, 가난, 기근, 질병예방과 같은 세계적 문제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28.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저자는 비영리적 단체의 성공적인 기금마련(Fundraising)을 위한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은 성공적인 기금활동의 중심이 되는 관계 설정의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조직적 분석, 정확한 연구, 관련 자료의 개발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비영리기관의 기금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비영리기관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실용도서인 이 책은 비영리기관의 운영자이거나 기금 개발 위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된다.

29. Harvard business review on corporate responsibility

'무엇을' '누구를' 위한 비즈니스인가? 이 논문들은 사회적 공동 책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최근의 의견들을 모아놓았다. 독자들은 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돈을 증여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회사가 정부와 비영리기관과 최선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사회가 비즈니스 기술의 개념과 실제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30. Giving USA 2007

‘누가(who)’ ‘누구에게(whom)’ ‘무엇을(what)’ 기부했는지에 대한 연차보고서인 ‘Giving USA 2007’는 일년 동안 미국 내 조직들의 자선활동에 대한 차트, 데이터,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Giving USA’는 Giving USA Foundation 에서 1955년 이후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 도서관에서 참고자료의 하나로서 활용하고 있다. 2006 동안 기부한 이들(개인, 유산, 단체, 재단)의 통계와 부문별(종교, 의료, 교육, 국제문제, 공공복지, 복지사업, 문화예술, 환경/동물, 재단) 기부(donation) 통계를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모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추론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조언을 제공한다.

31. Fundraising on the internet

"Fundraising on the Internet 2판에서는 Mal Warwick, Ted Hart, Nick Allen 과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완전 개정되었다. 이 책은 인터넷을 통한 기금활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이다. 기금을 올리기 위한 기술적 방법의 실질적인 조언으로 기존 시장을 밀고 들어가고 있는 포스트 닷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필요할 때에 유익한 정보를 위하여 이들 새로운 정보들은 저자들에 의해서 e-mail로 갱신된다.

32. Five Life stag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이 책은 비영리기관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대한 좋은 지침서이다. 이 책의 저자인 조직 개발 컨설턴트 Judith Sharken Simon은 당신의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주어진 단계에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도전과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자나 운영회원 또는 컨설턴트들은 조직에 당면한 문제점을 비교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며 현재의 단계에서 다음단계로의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의 침체나 해체에 대한 적신호를 확인 할 수도 있다.

33. Splendid Legacy

‘Splendid Legacy’는 National Center for Family Philanthropy에서 패밀리 재단(Family foundation)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증자들을 위하여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패밀리재단을 위한 상세한 청사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Splendid Legacy’는 패밀리 재단의 창설자의 필요에 맞춰 디자인되었다. 이는 패밀리 재단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모든 면을 다루고 있다. (가치, 임무, 가족의 개입을 위한 희망, 통제, 법적 문제, 윤리, 재단기금조성, 커뮤니케이션, 투자 및 운영 등) Splendid Legacy는 당신의 박애정신과 당신 가족의 사회참여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4. 행복한 기부 : 성공을 부르는 1%의 나눔 ‘기부’는 행복한 삶,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키워드

정치·경제 전문기자로 2004년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의 경제서적상을 수상한 토마스 람게의 최신작으로, 나눔과 성공 사이의 함수관계를 풀어 보는 신세대 경제학원론 교양서이다. 나눔의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행복 키워드로 ‘기부’를 강조하며, ‘기부’가 행복한 삶,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을 앞당겨 준다고 말한다.

35.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나눔 : 나 있는 곳, 내가 가진 것에서 ‘아름답게 나누기’

80년대와 90년대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저자 ‘박원순’이 말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글이다.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대학 시절과, 사시 합격 후 검사와 변호사 생활, 그리고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유학 후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등 사회 활동에 투신하기까지의 저자 자신의 삶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그마한 정성이나마 남과 나누려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36. 아낌없이 주는 101가지 쉬운 방법 :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자선활동 가이드북

<The Young Ones>, <Summer Holiday> 등 불멸의 히트곡을 우리에게 선사한 영국 팝의 거장 클리프 리처드. 1965년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그는 클리프 리처드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자선운동가로써의 새 삶을 시작하였다. <아낌없이 주는 101가지 쉬운 방법>은 영국에서 가장 큰 자선선교단체인 Oasis Trust재단의 설립자 스티브 초크가 클리프 리처드와 대담으로 풀어낸 자선활동의 방법과 의미에 대한 글이다.

37. 아름다운재단 사회공헌백서 2006/2007 : 나눔, 자선을 넘어 변화로! 나눔의 지혜로운 안내자

격년으로 발행되는 아름다운 재단의 사회공헌 백서 - ‘아름다운 동행’의 두 번째 발간집이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는 2006년, 2007년 2년간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한 120여개 기업들과

의 다양한 사회공헌 내용이 수록되었다. 최근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많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기업의 사회공헌의 양적 성장과 질적인 혁신에 대한 관심, 열정, 시도와 노력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38. 행복한 순간, 아름다운 기억, 1%의 나눔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설립 5주년 기념집이다.. 2000년 8월부터 출발한 아름다운 재단이 1% 기부자 2만 여명의 동참을 모아내고 60여억 원의 기부액을 모으기까지의 아름다운 역사를 적었다. 또한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기부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재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39.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재단은 꿈꿀 수 있는 재단이어야 한다, 특집 : 815인의 이름으로 김군자 할머니와 함께

아름다운 재단 창립 3주년 기념자료집에 실린 글들 가운데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실린 글들을 선정해서 재편집한 '아름다운재단 창립3주년 기념 자료집'

40. Giving Korea 2008, Giving, 한 자리에 모이다

2008년도에 들어 8번째 맞이한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Giving Korea 2008'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을 포함한 총 6개국의 기부 전문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나라별 기부 현황과 기부 문화를 소개하고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 기부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전 세계 기부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1부에서는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내용을 발표하며, 2부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영국 5개국의 기부 전문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주요 기부 선진국의 최신 기부 동향과 나라별 기부 문화를 한국과 비교하여 발표하였다.